



조.우.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책읽는 직장’ 통해 문화적 덕성 공유

‘환경·능력에 앞서 태도가 삶을 좌우... 키워드는 책’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앞에서 엄숙해질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현 사장은 “선택의 결과에 대해 칭찬을 듣는 순간이 위기”라며 자못 겸허한 등식으로 그런 물음을 에둘렀다. 칭찬받지 못한 선택마저 자신과 생에 대한 적극적 애정과 맞닿는다는 확신이 기도 하다. 조 사장의 그런 ‘멘트’는 곧 내실 있는 삶을 위한 치열한 자기 성찰이다.

“삶은 곧 태도입니다. 마음과 자세의 ‘가짐’에 따라 한 인간의 모습이 규정된다고 봅니다. 세속의 성공이든 내면적 정신가치의 발현이든 모두 그것에서 비롯되죠.” 자신만의 ‘태도’를 구획짓기 위해 그는 짬이 나는 대로 책을 읽는다. 다독보단 책갈피 하나 하나의 의미를 되짚고, 밑줄 긋는다. 이처럼 쌓은 지적 공력은 그가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바쁜 기관장 가운데 한 사람이란 사실과 오버랩되면서 한층 돋보인다.

| 지적 공력 쌓은 책들, 직원들에게 권유

그러나 그에 관한 소리 없는 소문의 골자는 정작 다른 데 있다. 바로 ‘나눔’의 실천이다. 그렇다고 물리적 자선이나 헌신이 아니다. 심성과 정신을 타인과 공유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이처럼 허탄한 나눔과 공유의 대표적 사례가 ‘CEO의 책선물’이다.

“책을 읽다보면 혼자서 삭이긴 아깝다 싶은 내용이 많죠. 그럴 때마다 공사 직원들과 주변에 일독을 권하곤 했습니다.”

매월 간부들과 각 팀에 선물하는 책만 해도 100여 권을 웃돈다. 책읽기를 통해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조직문화의 내면을 튼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표면적 이유다. 이 대목에서 그는 ‘뇌본주의腦本主義’를 말했다. “어느 책에 실린 어휘를 부하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았다”고 토를 달긴 했으나, 직원들에게 책을 권하게 된 까닭이 담긴 용어다.

“‘읽’을 위해선 책만한 것이 없죠. 지식이야말로 현대사회와 기업이 뿌리에서부터 건강한 생존력을 갖는 힘이 됩니다. 읽고 토론하고, 다시 아는 조직문화가 소망스럽다고 할까요.”

그러나 조 사장 나름의 또 다른 독서 모티브가 그 어떤엔 작용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보이지 않는 R&D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값있는 삶을 위해 끊임 없이 지식의 톱날을 갈아주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생을 위한 수단이자 목적이죠.”

그렇다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굳이 주변에까지 ‘전도’할 마음은 없다. 어디까지나 ‘공유’를 권할 뿐이다. 조직 위계를 빌려 사내에 교훈적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맛깔스런 음식이 그렇듯이 삶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맛보고자 하는 순전함” 때문이란 게 그의 솔직한 표현이다. 허나 의도했건 아니건, 인천공항공사는 그 때문에 ‘책의 향기’가 사내에 진하게 배어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가 됐다.

| ‘자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R&D’... 책읽기

그런 움직임은 언론이 놓칠 리 없다. 지역언론을 필두로 이런 저런 매체를 통해 ‘기업문화’의 표본으로 칭송됐다. 때론 ‘책

읽는 풍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받들기도 했다. 하지만 조 사장은 "부질없고 민망한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란 거창한 당위론을 말하기에 앞서, "그렇게 드러내놓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라리 그로선 생활 속의 독서가 '기사꺼리'가 되는 풍토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인천공항 대합실에도 군데군데 서가가 있었으면 한다"는 무심한 결말처럼 조 사장에게 책과 책임기는 일상이자 경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이든 원로 공직자로서, 유력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그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책'의 각별한 의미를 전한다. "책도 젊어서 많이 읽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디지털문화와는 또 다른 감칠맛 나는 영혼의 양식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그의 관심 또한 책을 통해 실현된다. 최근엔 인천공항과 가까운 인근 지역사회의 초등학교에 적지 않은 분량의 책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그것 역시 알량한 선행을 위함이 아니다. 그보다 더욱 속내 깊은 애정이 깃들여 있다. "평생을 살면서 후대에게 '선물' 하나쯤은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이 그것이다.

그 '선물'이 규정된 삶의 목적이든, 행복에 이르는 방식이든 관계치 않다. 스펜서 존슨의 《선물》과 엔디 앤드루스의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가 조 사장의 최근 독서일기 첫머리에 들어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닌 듯. 그는 "참 스승을 갖는 삶"도 자녀에게 남겨줄 만한 자신만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평생토록 외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동경할 만한 인생의 스승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에서다. 이는 보통의 노력으로 결코 얻기 힘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책을 통해 평생에 남을 '선물' 얻어야

신입사원 연수 때마다 그는 특히 '완성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정작 그걸 이루는 함수는 변치않습니다. 환경과 능력, 그리고 태도의 승수가 성공의 높이를 가늠해 내죠."

나머지가 상수라고 하면, 태도는 그 중 가변적인 종속변수다. 긍정적 세계관과 창의력, 적극성, 정직함, 성실성 등의 세속적 미덕은 물론, 이를 아우르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 등이 성공을 재단하는 가변의 것들이다.

이런 세계관의 공식, 역시 그만의 '책과 인생'이 결과한 소중한 깨달음이다. 퇴직 후엔 잔잔한 글쓰기에 몰입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게 그의 소박한 바람. 그렇다고 막연한 '은퇴'는 결코 아니다. "우리들 일상의 공간에서 흘러보내는 부조리한 말과 글의 습관을 일깨우고 싶다"는 말처럼 생의 깊어치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진지한 작업을 거들 생각은 없다.

"인격의 무게나 교양의 함량에 따라 인간의 '값'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값과 품위를 높이는 데 책보다 더한 무기는 없죠. 공사 가족들은 물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그런 공감대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 때문은 아니겠으나 그렇고 그런 처세서보단, 다산사상에 점차 매료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그의 지적 미각이다. **한문**

취재 | 박경만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일 각 부서와 간부들에게 약 130권 안팎의 책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조우현 사장의 '책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다. 조 사장은 자신이 읽은 책 가운데 권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매월 직원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또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독후감을 공모하는 등 독서풍토 진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주변의 영종·용유지역 초·중·고교생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 서고 있다.

최근엔 어린이 도서선정위원회가 고른 교양도서를 비롯해 학업에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을 수백 권 단위로 이들 학교에 전달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장봉도 해림재활원 정신지체자들이 직접 만든 향초를 구매, 포상하는 한편, 조 사장이 사내에 선물한 책들은 연말에 수거해 지역사회와 농어촌책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쓸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도서기증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소양의 깊이를 더하고, 교육환경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